

2026년 3월 3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키움증권

지정학적 불안과 한국 수출: 반도체의 완충 역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수요 둔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이스라엘 및 이란 수출 비중이 0%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한국 수출 구조가 AI 투자 사이클에 기반한 반도체 중심의 IT 수출이라는 점은 중요한 변화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켜 수요 둔화와 수출 물량 감소 우려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수출은 소비재 중심의 최종 수요가 아니라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반도체 수요가 소비 사이클에 연동되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현재의 AI 투자 사이클은 이러한 충격을 일정 부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2026년 2월 한국 수출 증가율은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3일 감소했음에도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한 674.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2월 기준 최대 실적이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35.5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9.3%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이 30억 달러를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반도체 수출이 주요 견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60.8% 증가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5개 품목(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선박, 바이오)만 증가하며 품목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는 이전 대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요 위축을 일정 부분 완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 수출 증가율과 일평균 수출 증가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